

# 독일의 2009년 노동시장 현황과 2010년 전망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 머리말

지난해 독일 경제는 유사 이래로 가장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에 놓였다. 연방통계청의 최신 경제지표에 따르면, 2009년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0%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및 산업생산의 감소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sup> 물론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취업자 수와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독일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리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우려되었던 대량해고 사태도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는 조업단축급여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기업 차원의 다양한 유연화 전략에 힘입은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10년 노동시장 및 고용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Arbeitsmarkt bleibt im Krisenjahr robust, 05 Januar 2010.

## ■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

독일 연방노동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2009년 최신 노동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취업자 수는 약 4,014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 2,000명(-0.2%)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342만 3,300명으로 전년대비 +15만 5,376명(+4.8%)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는 지난해의 심각한 경기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리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며, 대량 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받았던 조업단축과 기업 차원의 다양한 위기극복 노력에 힘입은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2009년도 노동시장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취업자 수,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 및 실업자 수 현황

연방노동국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의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 따르면,<sup>2)</sup> 2009년 하반기의 취업자 수(Erwerbstätige)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추이는 상반기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개선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물론 전년도와 비교하면 양쪽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2월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약 4,029만 8,000명으로 전월대비 약 -17만 2,000명(-0.4%)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21만 1,000명(-0.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산정 자료인 2009년 11월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는 약 2,776만 8,000명으로 전월대비 -5만 3,000명(-0.2%)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14만 6,000명(-0.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보험의무 고용 중에서 시간제 고용(Teilzeitbeschäftigung)은 전년대비 약 +28만 명이 증가한 반면, 전일제 고용(Vollzeitbeschäftigung)은 약 -4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

2)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Monatsbericht, 12. 2009;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Monatsbericht, 01. 2010.

타났으며, 이러한 전일제 고용의 감소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저임금 고용(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의 경우 지난해 11월에는 499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7만 8,000명(+1.6%)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저임금 고용형태로 부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년대비 +7만 1,000명(3.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독일의 2009년 취업자 수, 고용자 수 및 실업자 수 현황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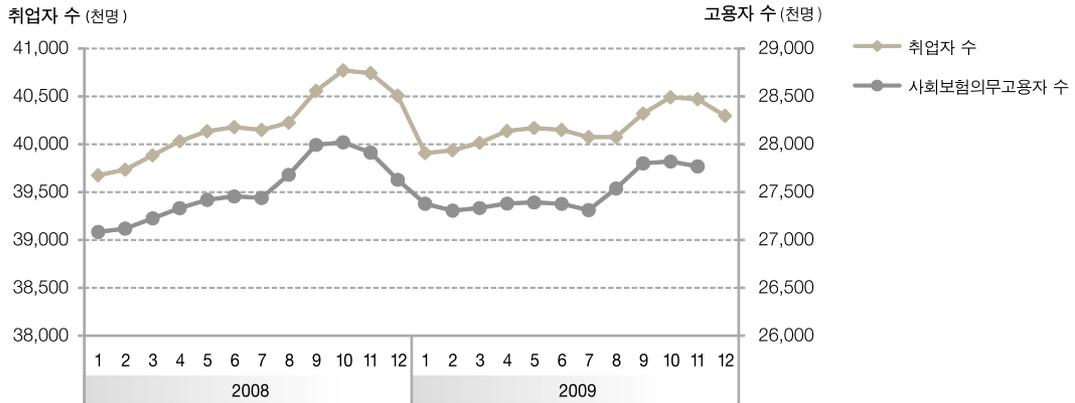
	취업자 수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		실업자 수			
	총계	전년대비 증감(%)	총계	전년대비 증감(%)	총계	전년대비 증감(%)	실업률 (%) <sup>2)</sup>	
2006 <sup>1)</sup>	38,966	0.7	26,365	0.5	4,487.2	-7.7	10.8	
2007 <sup>1)</sup>	39,656	1.7	26,942	2.2	3,776.5	-15.8	9.0	
2008 <sup>1)</sup>	40,220	1.4	27,505	2.1	3,267.9	-13.5	7.8	
2009 <sup>1)</sup>	40,148	-0.2	-	-	3,423.3	4.8	8.2	
2009	1월	39,909	0.6	27,379	1.1	3,488.8	-4.7	8.3
	2월	39,938	0.5	27,307	0.7	3,551.9	-1.8	8.5
	3월	40,016	0.3	27,337	0.4	3,585.8	2.2	8.6
	4월	40,138	0.3	27,383	0.2	3,584.8	5.0	8.6
	5월	40,172	0.1	27,395	-0.1	3,458.0	5.3	8.2
	6월	40,151	-0.1	27,380	-0.3	3,410.0	7.9	8.1
	7월	40,074	-0.2	27,313	-0.5	3,462.5	7.9	8.2
	8월	40,074	-0.4	27,537	-0.5	3,471.5	8.6	8.3
	9월	40,321	-0.6	27,801	-0.7	3,346.5	8.6	8.0
	10월	40,491	-0.7	27,822	-0.8	3,228.6	7.7	7.7
	11월	40,470	-0.7	27,769	-0.5	3,215.4	7.6	7.6
	12월	40,298	-0.5	-	-	3,275.6	5.6	7.8
2010	1월	-	-	-	3,617.4	3.7	8.6	

주 : 1) 연도별 평균치.

2)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민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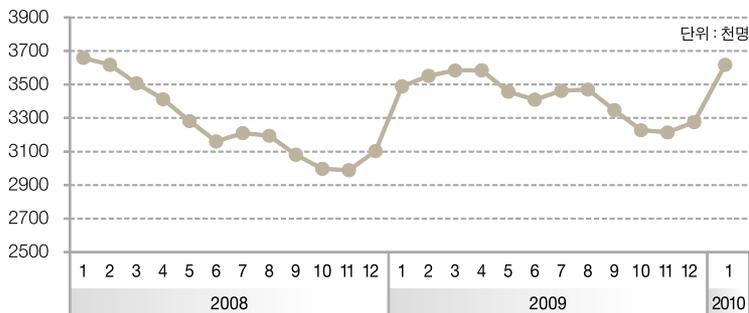
출처: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01. 2010.

[그림 1] 월별 취업자 수 및 사회보험의무고용자 수 변화 추이



2009년의 실업자 수(Arbeitslose)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감소 등을 감안한 당초의 예상치와 비교하여 그리 높은 증가폭을 보이지는 않았다. 2009년 12월의 실업자 수는 327만 5,562명으로 전월대비 +6만 133명(+1.9%)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17만 3,460명(+5.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10년 1월 실업자 수는 361만 7,485명으로 집계되어 전월대비 +34만 1,959(+10.4%)명, 그리고 전년대비 +12만 8,684명(3.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월의 실업자 수 증가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영향과 더불어 경제 내의 생산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및 신규채용 중지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전일제 고용의 감소도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0년 1월의 실업률은 8.6% (2009년 12월: 7.8%)로 나타나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월별 실업자 수 변화 추이



## 조업단축 실시 현황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 데에는 조업단축으로 대표되는 각종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4/4분기에 연방노동국에 접수된 조업단축 신청건수 및 신청대상 근로자 수를 살펴 보면, 10월에는 6,887건으로 10만 1,783명, 11월에는 1만 423건으로 15만 2,030명 그리고 12월에는 1만 6,242건으로 22만 4,2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조업단축 신청이 접수되었다 (표 2 참조).

〈표 2〉 독일의 2009년 조업단축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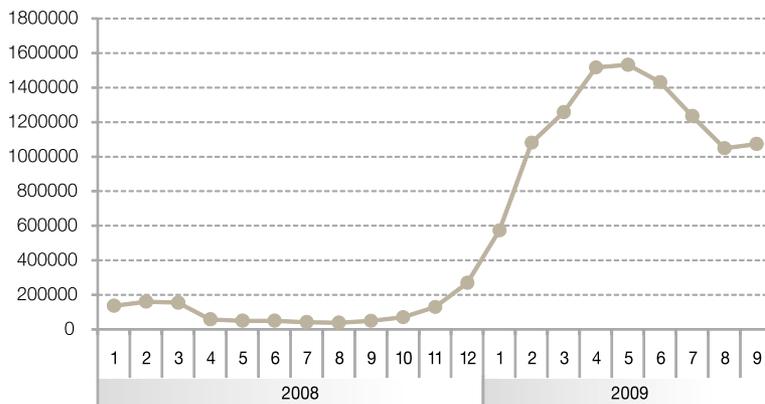
	조업단축 신청건수	조업단축 신청대상 근로자 수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 현황			
			전체	전년대비	%	
2006 <sup>1)</sup>	2,110	24,113	66,981	- 58,525	- 46.6	
2007 <sup>1)</sup>	3,479	34,327	68,317	1,336	2.0	
2008 <sup>1)</sup>	4,433	74,870	101,540	33,224	48.6	
2009 <sup>1)</sup>	13,761	297,529	-	-	-	
2009	1월	17,370	345,990	574,407	436,648	317.0
	2월	19,693	721,202	1,082,323	921,233	571.9
	3월	25,039	679,013	1,258,895	1,103,372	709.5
	4월	19,596	451,650	1,517,845	1,458,779	2,469.7
	5월	14,936	291,553	1,533,579	1,482,606	2,908.6
	6월	12,253	210,093	1,433,269	1,382,858	2,743.2
	7월	10,063	170,141	1,236,473	1,194,479	2,797.8
	8월	6,216	105,023	1,049,919	1,010,503	2,563.7
	9월	6,405	117,660	1,074,447	1,024,482	2,050.4
	10월	6,887	101,783	-	-	-
	11월	10,423	152,030	-	-	-
	12월	16,246	224,212	-	-	-

주 : 1) 연도별 평균치.

출처: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01. 2010.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평균 조업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단지 10만 1,540명에 불과하였으나, 가장 최근 자료인 2009년 9월에는 107만 4,447명(전년대비: +2,054.4%)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업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2009년 5월에 최고치인 153만 3,597명을 기록한 이후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름휴가 시즌의 시작으로 인해 조업단축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그림 3] 월별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 변화 추이



한편, 지난해 2/4분기에 독일 고용연구소(IAB)에서 ‘전체 경제의 일자리 공급에 관한 조사 (IAB-Erhebungen des gesamtwirtschaftlichen Stellenangebots)’의 일환으로 실시된 약 8,000여 개의 대표적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로부터 심각한 혹은 부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 약 17%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2/4분기에 조업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3) Heckmann et. al., Unternehmensbefragung im II. Quartal 2009: Wie Betriebe in der Krise Beschäftigung stützen, IAB-Kurzbericht, 18/2009, S. 4~5.

〈표 5〉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위기극복 수단

	기업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신규 고객 그룹 및 시장축소	신규채용 중지	조업단축 실시	임금감축 및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해고
경제위기 영향을 받는 사업장 전체	56	76	83	17	20	11
업종분류별						
제조업 전체, 에너지업 및 광산업*	56	85	90	38	26	16
식품 및 섬유피복업, 가구제조업*	52	83	91	23	23	13
목재 및 제지업, 인쇄출판업*	62	89	96	33	30	16
화학, 합성수지, 유리 및 건설자재 제조업*	56	87	84	33	22	20
금속제조업*	61	87	87	51	29	21
기계, 전자 및 차량제조업*	52	83	91	46	24	14
무역 및 교통업, 숙박 및 언론서비스업	55	72	85	10	21	8
신용 및 보험업, 경제서비스업	55	86	74	13	16	10
개인서비스업, 사회 및 공공서비스업	54	71	79	4	21	9
기업규모별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						
1 ~ 10인	53	74	86	14	19	9
10 ~ 49인	63	84	78	26	24	17
50 ~ 249인	66	82	66	41	29	21
250인 이상	62	84	49	55	34	28
경제위기의 영향정도별						
심각한 영향을 받음	56	71	85	19	29	24
부분적 영향을 받음	55	77	83	17	18	8

주 : \* 제조업 부문

\*\* 조업단축과 연관없는 근로시간 단축.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5.

이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 조업단축 실시가 빈번히 이루어졌는데, 특히 금속업의 경우 조업단축 실시 비율이 51% 그리고 기계설비/전자기술/차량 제조업의 경우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 조업단축 실시 비율은 개인/사회/공공서비스업의 경우 4%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가 250인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55%가 조업단축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단지 14%만이 조업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업단축은 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위기대처 수단인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 ■ 2010년 노동시장 및 고용 전망

2009년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5.0%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2010년에는 -0.5% ~ +0.5%의 경제성장률 혹은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하더라도 +2.5%의 경제성장률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이다.<sup>5)</sup> 연방노동국의 프랑크-위르겐 바이제(Frank-Jürgen Weise) 국장은 “독일 경제가 깊은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견재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sup>6)</sup> 당초에 연방노동국에서는 2009년 실업자 수가 약 37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 하반기에는 실업자 수가 400만 명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대량해고 사태의 발생이나 급격한 실업자 증가 등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노동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4)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중지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위기대처 수단이었다.

5) Bach et al., Arbeitsmarkt-Projektion 2010: Die Krise wird deutliche Spuren hinterlassen, IAB-Kurzbericht, 20/2009, S. 1~2.

6)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Arbeitsmarkt bleibt im Krisenjahr robust, 05 Januar 2010.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결과에 기초하여 2010년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우어슐라 폰 데어 로이엔(Ursula von der Leyen)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은 “산업부문이 여전히 경제위기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업자 수 증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2010년 노동시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 실업자 수 통계가 발표된 직후에는 이러한 낙관론이 서서히 수그러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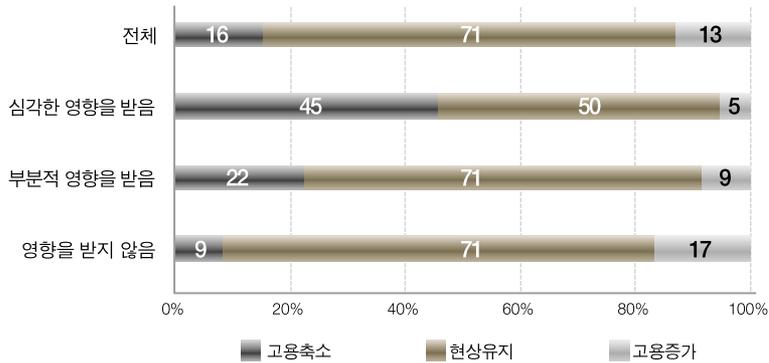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1월 28일자 언론보고 내용에 따르면,<sup>7)</sup> 로이엔 노동사회부 장관이 1월달 실업자 수가 전월대비 약 +34만 2,000명으로 급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1월의 급격한 실업자 수 증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언론보고에서는 독일 정부의 최신 2010년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 평균 실업자 수가 약 37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달의 경우에는 실업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서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2010년 노동시장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며,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보다도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채용 중지나 대량해고 실시는 실업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9년 2/4분기에 실시된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향후 12개월간 고용 전망을 살펴보면,<sup>8)</sup> 설문에 참여한 전체 기업들 중 16%가 앞으로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 13%의 기업들은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대다수 기업들은(71%) 앞으로의 고용상태는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BMAS, Der Arbeitsmarkt braucht weiter die volle Aufmerksamkeit, Pressemitteilungen, 28 Januar 2010.

8) Heckmann et. al., Unternehmensbefragung im II. Quartal 2009: Wie Betriebe in der Krise Beschäftigung stützen, IAB-Kurzbericht, 18/2009. S. 7~8.

[그림 3] 기업 설문조사에 나타난 기업들의 향후 고용전망



출처: Heckmann et al., IAB-Kurzbericht, 18/2009, p. 7.

그러나 경제위기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45% 정도가 앞으로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고용 전망은 경제위기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되며 이로 인해 개별 기업들이 받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그 추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노동국의 바이제 국장은 “조업단축급여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화 정책은 결국 경제위기의 파급효과를 단지 시간적으로 뒤로 미루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즉 고용안정화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금까지 조업단축급여 지급을 위해 실업보험공단 단독으로만 약 60억 유로 상당의 재정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연방노동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조업단축급여를 통한 고용안정화 정책의 한계와 기업들의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적으로는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2010년에는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바이제 국장은 전망하고 있다.

9) Welt Online, Trotz Kurzarbeit steigt ab 2010 die Arbeitslosigkeit, 14. November 2009.

2010년도 독일의 단체(임금)협상 전망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높은 임금인상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sup>10)</sup> 오히려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보다 더 중요한 협상 이슈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미 서비스노조(Ver.di)와 공무원연맹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8년도 단체협상에서 서비스노조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 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단지 5%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무원연맹에서도 정부 부처의 재정악화를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는 몇 퍼센트의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독일노총(DGB)에서는 정부에 조업단축 관련 규정들을 추가로 연장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일자리 감소 및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데 조업단축이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조업단축 관련 규정들에 대한 유효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어야 하고 그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연합회의 디터 훈트(Dieter Hundt) 회장은 새로운 기업 비용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스런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대다수 기업들의 경우 금년도에 완전한 경제위기의 영향권에 들어서게 될 경우가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과는 달리 보다 더 큰 비용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은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핵심요건이라고 밝혔다.

## ■ 맺음말

최근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을 종합해 보면, 2009년의 취업자 수와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독일 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

10) *Welt Online*, 2010 wird es keine hohen Tarifabschlüsse geben, 15 Dezember 2009.

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는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노동시장이 안정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조업단축급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고용안정화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다양한 위기극복 노력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노동시장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독일 정부와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올해에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한 경우에는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노동국의 재정적자 증가로 인한 정부지원 축소와 기업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대량해고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채용 또한 상당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증가 현상은 연말로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나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가오는 임금협상에서도 노동조합이 높은 임금인상률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보다 더 중요한 협상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KLI**

---

---

## 참고문헌

---

---

- Bach, Hans-Uwe/Hummel, Markus/Klinger, Sabine/Spitznagel, Eugen/Zika, Gerd, Arbeitsmarkt-Projektion 2010: Die Krise wird deutliche Spuren hinterlassen, IAB-Kurzbericht, 20/2009.
- BMAS, Der Arbeitsmarkt braucht weiter die volle Aufmerksamkeit, Pressemitteilungen von 28 Januar 2010, [http://www.bmas.de/portal/41790/2010\\_01\\_28\\_arbeitsmarktzahlen.html](http://www.bmas.de/portal/41790/2010_01_28_arbeitsmarktzahlen.html)
-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Dezember 2009.
- \_\_\_\_\_,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Januar 2010.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Arbeitsmarkt bleibt im Krisenjahr, 05. Januar 2010.
- Heckmann, Markus/Kettner, Anja/Pausch, Stephanie/Szameitat, Jörg/Vogler-Ludwig, Kurt, Untermnehmensbefragung im II. Quartal 2009: Wie Betriebe in der Krise Beschäftigung stützen, IAB-Kurzbericht, 18/2009.
- *Welt Online*, Trotz Kurzarbeit steigt ab 2010 die Arbeitslosigkeit, 14 November 2009,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5211257/Trotz-Kurzarbeit-steigt-ab-2010-die-Arbeitslosigkeit.html>
- \_\_\_\_\_, 2010 wird es keine hohen Tarifabschlüsse geben, 15 Dezember 2009,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5540758/2010-wird-es-keine-hohen-Tarifabschluesse-geben.html>
- \_\_\_\_\_, Zahl der Erwerbstätigen sinkt trotz Krise nur leicht, 4 Januar 2010,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5719295/Zahl-der-Erwerbstaetigen-sinkt-trotz-Krise-nur-leicht.html>